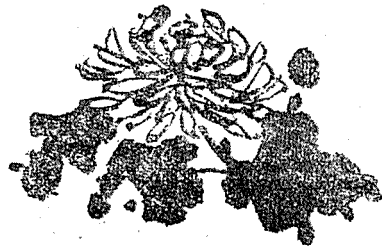


「트리코모나스」 증은 기생충 병이다

박 희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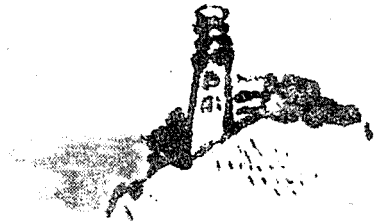


트리코모나스증은 남녀 성교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이다. 보통여성의 3~15%에서 트리코모나스 기생충균이 발견되고 특히 창녀에게서는 50~75%에서 쉽게 알아 낼 수가 있다. 주로 비노생식기에 감염을 이르는 「트리코모나스바지나리스」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왜 말썽을 피우는 것인가?

원생동물과에 속하는 이 기생충

은 현미경으로 직접 볼것 같으면 백혈구 크기보다는 약간 크고 배(梨)모양을 하고 있으며 기민한 활동성을 갖고 있는 생물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에서 이 트리코모나스 증을 생각하여 보면 흥미있는 몇가지 사실이 있다. 즉 첫째 여성에게 냉이라고 일컫는 심한 대하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산후 자궁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



어서 간혹 미열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트리코모나스증을 갖고 있는 환자의 90%에서 자궁경부염 미란증이 이르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장차 자궁경부암으로 이동될 소질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외관상 둘다 구별이 곤란할 때도 있다. 셋째 성병과 병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성에게는 성호선염을 이끄는 원인이 될 때도 있다. 넷째 트리코모나스 증은 드물게 잠정적인 불임증을 이끄는 예가 있다. 기생충의 독성산물이 정충의 활동성을 저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트리코모나스 증은 젊은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 18세에서 35세의 여성에서 피크를 이루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성숙한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점은 성병과 유사한 바 있다. 실제 임질에 걸린 반수의 여성에게서 트리코모나스균도 증명되는데 그들의 배우자는 100%에서 이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단정해야만 한다. 치료에 임할 때는 쌍방이 함께 동시에 받아야 한다. 트리코모나스증도 다른 성병처럼 드물게 성교이외의 방법으로도 감염이 된다. 공중목욕탕에서 혹은 성기세척기(뿔물)를 함께 사용할 때 이균을 가진 어머니가 애기한테 감염시켜주는 일은 가끔 보는 일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숙한 처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질외음부의 가려움증은 이 병의 특징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없이 이균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25%나 된다는 것이다. 간혹 성교통 및 성기증압감등을 느낄 때가 있다.

이질병의 잠복기간(균이 침입하여 발병될때까지)은 4일에서 28일로 추측된다.

한편 월경과 임신은 이병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트리코모나스 감염자의 1/5에서 배뇨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간혹 복통 및 직장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단 임균의 동시 감염으로 인한 자궁골반부

막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질분비물의 특징은 다량의, 노란 거품의 악취가 있다. 치료는 종진부터 메트로나이다졸(후라질)을 1일 600mg 3회 분복, 1주일간 복용하며 그외에 파시진, 트리코마이신, 티베탈등 많이 있다.

여성은 내복약과 함께 질정을 사용하면 상승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임신부에서 트리코모나스증이 빈번히 발생되는데 질내 분비산성도가 저하되므로써 트리코모나스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기

치료약제들이 임신초기의 태아에게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가? 확실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약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모종의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치료는 임신 후반기로 미루도록 하여야 하고 질세척과 질정삽입 정도의 온건한 치료로서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현명하다. 치료를 받는 중의 남녀 환자는 도중에 술을 마시는 일은 금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필자=신부인과 개업의·전문의·의박>

토막상식

8월 임신, 5월 出産이 좋다

보건 통계에 의하면 분만시에 사고율이 낮고 미숙아가 덜 생기기며 유아 사망율도 낮은 제일 좋은 달은 역시 5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손의 장차 발육에 가장 좋은 계절이 5월이란 사실이 이미 공인된 리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출산 경향을 보면, 1,2월이 가장 많고 5월 출산은 최저를 던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더운 8월에 임신하여

야만 5월 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8월은 농번기로서 고양이의 손도 빌어야 할 만큼 일손이 모자라는 시기인데다가 임신이 되더라도 입덧과 계절적 불쾌에서 오는 트러블등으로 인공 유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아기의 건강상 가장 좋은 5월 출산보다는 오히려 최악의 계절인 1,2월에 출산이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